

아시아 무대 향해...광주FC 위대한 도전 시작



‘아시아 무대’를 향한 광주 FC의 위대한 도전이 시작된다.

광주가 21일 오후 2시 광주 축구전용구장에서 울산현대를 상대로 하나원큐 K리그 1 2023 34라운드 홈 경기에 나선다. 정규리그를 3위로 마무리한 광주의 파이널라운드 첫 경기다.

광주는 강원FC와의 33라운드 홈경기에서 1-0 승리를 거두면서 구단 첫 K리그 1 전 구단 상대 승리를 만들었다. 이 승리로 포항스틸러스를 승점 4점 차까지 추격하면서 좋은 분위기에서 파이널 라운드 5경기 일정에 돌입한다.

아시아챔피언스리그(ACL) 마지막 3위에 자리하고 있는 만큼 ‘강팀’들과의 승부에서 밀리지 않고 아시아 무대를 넓혀야 한다는 각오다.

2주간의 휴식기를 보내면서 광주는 전열을 재정비했다. 반가운 소식들도 전해졌다. ‘중원의 핵심’ 정호연이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목에 걸고 복귀했고, 이순민은 다시 한 번 국가대표팀에 호출되면서 경험을 더했다. 부상으로 빠졌던 이희균도 복귀를 앞두고 있다. 주전들의 공백 속에서 좋은 활약을 해준 이강민도 든든하다.

광주는 전방위적인 공격으로 울산을 공략할 계획이다.

광주는 다양한 선수가 득점 행진에 나서면서 ‘방심할 수 없는 상대’가 됐다. 또 팀에서 가장 많은 7

파이널A 내일 울산과 첫 경기 2주 휴식기 보내며 전열 재정비 다양한 득점 루트로 전방위 공략 靑靑스리그 진출 3위 수성 목표 전남 22일 김포 원정 5강 도약 노려

골을 기록한 ‘원발 스페셜리스트’ 아사니가 체코와 유로 2024 예선에서 알바니아의 3-0 승리에 기여하는 선제골을 장식하는 등 자신감이 최고조에 이르렀다.

골키퍼 이준과 수비수 아론은 좋은 움직임으로 김경민과 티모의 공백을 잘 채우고 있다. 무엇보다 주장 안영규를 중심으로 ‘원팀’이 되면서 광주는 파이널라운드에서도 ‘경계 대상’으로 꼽힌다.

울산은 리그 1위를 달리고 있는 ‘올스타 군단’이다. 올 시즌 상대 전적에서도 광주에 2승 1패로 앞섰다.

하지만 광주는 자신감을 가지고 울산을 기다리고 있다.

광주는 지난 9월 울산 원정에서 이근희와 베카의 골을 앞세워 2-0으로 경기를 끝내면서 8년 만에 울산전 승리를 만들었다.

울산은 최근 ACL 경기 포함 3경기에서 2무 1패로 주춤했다. 여기에 조현우, 김영권, 정승현, 김태

환, 설영우가 A매치 일정을 소화하면서 컨디션 관리라는 숙제도 안고 있다.

체력과 자신감을 동시에 채운 광주가 다시 한 번 울산전 승리를 장식하면서 돌풍을 이어갈지 주목된다.

한편 전남드래곤즈는 김포 원정길에서 5강 도약을 노린다.

전남은 22일 오후 1시 30분 김포솔터축구장에서 김포FC를 상대로 K리그2 2023 36라운드 원정 경기를 치른다.

전남은 14승 5무 13패(47점)로 6위에 자리하고 있다. 플레이오프 진출권인 5위 경남FC와는 승점 2점 차다. 전남은 이번 원정에서 승점 3점을 획득해 상위권으로 도약하겠다는 각오다.

고종운 감독이 이끄는 김포는 김태환, 박경록, 조성권으로 구성된 스리백을 중심으로 K리그2 최상실점(21점)을 기록하고 있다. 공격도 매섭다. 외국인 선수 루이스가 16골로 득점 1위에 올라섰다.

전남은 수비 조직과 스피드를 앞세운 김포를 상대로 도움 1위(12 도움), 득점 3위(13골)인 ‘공격의 핵’ 발디비아로 정면 돌파에 나서겠다는 각오다.

최근 5경기 맞대결에서는 전남이 1승 2무 2패로 열세를 보였다.

전남이 김포 원정에서 상위권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지 눈길이 쏠린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지난 29라운드 울산과 경기에서 득점한 광주 베카가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광주FC 제공>

클린스만호 해외파, 소속팀 돌아가 출격 준비

황희찬 21일·손흥민 24일 출전...김민재·이재성 22일 독일서 맞대결



손흥민



이강민

10월 A매치 기간 2경기에서 ‘10득점 무실점’ 연승으로 자신감을 충전한 축구 국가대표팀의 주축 해외파 선수들이 소속팀으로 돌아가 출격을 준비한다.

대표팀은 물론 소속팀인 잉글랜드 토트넘에서도 ‘캡틴’을 맡고 있는 손흥민은 24일 오전 4시(한국시간) 풀럼과 프리미어리그(EPL) 9라운드 홈 경기를 치른다.

이번 시즌 EPL에서 6골을 터뜨려 득점 공동 2위를 달리는 손흥민은 최근 근육 이상 등 건강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국내에서 열린 이달 A매치 기간 컨디션을 조절했다.

13일 튀니지와 평가전(4-0 한국 승)에서 벤치를 지킨 손흥민은 17일 베트남과의 경기(6-0 승)엔 풀타임을 소화하며 팀의 네 번째 득점을 기록하는 등 견제함을 알렸다.

손흥민에 앞서 ‘코리안 가이’ 황희찬(울버햄프턴)이 21일 오후 11시 본머스와의 원정 경기를 앞두고 있다.

황희찬은 EPL에서 최근 2경기, 리그컵까지 포함하면 울버햄프턴의 공식전에서 3경기 연속골을 넣으며 맹활약하고 있다.

리그 5골로 엘리저 홀란(맨체스터 시티·8골), 손흥민 등에 이어 공동 4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그는 베트남과의 A매치에서도 득점포를 가동했다.

황희찬이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목에 걸고 ‘금의환향’한 이강민은 프랑스 파리 생제르맹(PSG)에서 본격적으로 입지 다지기에 나선다.

이번 시즌 프랑스 최고 명문인 PSG로 이적한 이강민은 8월 리그 2라운드 이후 왼쪽 대퇴사두근 부상으로 한 달가량 결장한 바 있다.

아시안게임 금메달로 병역 혜택을 받으며 안정적인 유럽 생활의 발판을 마련한 이강민은 A매치 데뷔골을 포함해 3골 1도움을 올리며 패조의 컨디션을 뺀 가운데 22일 자정 스트라스부르와 리그 19라운드 홈 경기를 앞두고 있다.

독일 분데스리가에선 대표팀 수비의 핵심 김민재(바이에른 뮌헨)와 2선의 살림꾼 이재성(마인츠)이 맞대결을 펼칠 전망이다. 둘의 소속팀은 22일 오전 1시 30분 마인츠의 홈구장인 메바 아레나에서 분데스리가 8라운드를 치른다.

‘아시안게임 득점왕’ 정우영이 뛰는 슈투트가르트는 21일 오후 10시 30분부터 우니온 베를린과 원정 경기를 벌인다.

정우영은 아시안게임 출전과 A매치 출전으로 소속팀 경기엔 지난달 초 이후 한 달여 만에 나선다. 아시안게임에서 8골을 폭발한 정우영은 A매치에서도 골 맛을 보며 득점 감각에 몰이 오른 상태라 소속팀에서도 골행진이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연합뉴스

KBO 포지션별 최고 수비수 뽑는다...KIA 18명 후보에

올해 수비상 신설

11월 시상식서 발표

KBO가 포지션별 최고 수비수를 선정한다.

KBO가 10일 ‘KBO 수비상’ 후보를 발표했다. KBO는 올 시즌을 앞두고 수비 가치 인정과 리그 전반적인 수비 능력 향상을 위해 리그 공식 수비상 제정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정규시즌에서 가장 뛰어난 수비능력을 발휘한 각 포지션별 1명씩 총 9명에게 수비상이 수여된다. 수상자는 투표 점수 75%와 수비 기록 점수 25%를 합산해 결정된다.

각 구단 감독과 단장, 코치 9명 등 구단 별 11명씩 총 110명이 투표를 진행한다. 투표인단은 소속 구단 선수에게는 투표할 수 없으며, 비공개로 투표가 진행된다.

투수는 144경기의 3분의 1 이닝(48이닝) 이상

투구한 선수가 후보가 된다. 불펜 투수도 후보에 올 수 있도록 투수 후보 기준을 정했다.

포수는 팀 경기 수의 2분의 1(72경기) 이상 출장한 선수, 내야수와 외야수는 팀 경기 수에 5이닝을 곱한 720이닝 이상 해당 포지션에서 수비를 한 선수가 대상이다.

외야수는 좌익수, 우익수, 중견수로 세분화해 후보가 결정된다. 두 개 이상의 포지션에서 합산 720이닝 이상 출장한 선수는 가장 많은 이닝을 소화한 포지션에서 후보가 된다.

선정 기준에 따라 투수 108명, 포수 14명, 1루수 4명, 2루수 10명, 3루수 9명, 유격수 9명, 좌익수 5명, 중견수 9명, 우익수 7명이 후보가 됐다.

KIA에서는 양현종·이리나·윤영철·파노니·임기영·앤더슨·산체스·최지민·전상현·메디나·장현식·정해영(이상 투수), 김태군(포수), 김선빈(2루수), 김도영(3루수), 박찬호(유격수), 소크라테스(중견수), 이우성(우익수) 등 18명이 명단에

포함됐다.

한편 수비 기록은 KBO 공식 기록 업체인 스포츠투아이와 협력해 개발한 수비 지표가 활용된다.

포지션별 2-3개 수비 항목의 점수를 합산해 총점을 산출하게 되며, 수비율과 레인지팩터가 반영된 공식기록 점수가 전 포지션에 공통 반영된다.

투수는 번트타구 처리 및 견제, 포수는 포수무관 도루를 제외한 도루 저지율과 블로킹율, 내·외야수는 기록되지 않은 호수비와 실책 등을 보정한 조정 KUZR(KBO Ultimate Zone Rating) 점수를 적용받는다.

포수 무관도루 및 KUZR 보정 관련 집계에는 KBO 공식기록원이 시즌 중 별도로 축적한 데이터가 활용될 예정이다.

이번 첫 수비상의 주인공은 오는 11월 말에 열리는 KBO 시상식에서 발표된다. 수상자에게는 트로피와 상금 200만원이 수여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KBO, 내년부터 자동 볼 판정 시스템·피치 클락 도입

<투구 시간 제한>

‘팬 퍼스트’ 위해 제도 개선

이사회 열고 관련 설비 구축키로

KBO가 2024시즌부터 자동 볼 판정 시스템(Automatic Ball-Strike System·ABS)과 피치클락(Pitch-Clock·투구 시간제한)을 도입한다.

KBO는 18일 2023년 제4차 이사회를 열고 ABS와 피치클락의 KBO 리그 도입 시기를 2024 시즌으로 계획하고 관련 설비 및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앞서 KBO는 지난 7월 ‘팬 퍼스트’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KBO리그와 국가대표팀의 ‘레벨 업 프

로젝트’를 발표했다.

제도 개선을 통해 리그의 경기력을 끌어올리고 야구 저변확대 및 대표팀의 경쟁력 강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팬들의 만족도를 높여겠다는 계획이었다.

ABS와 피치클락은 ‘레벨 업 프로젝트’중 제도 개선 분야의 핵심으로 KBO는 그 동안 시스템 및 하드웨어 검토, 리그 도입 시 경기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왔다.

또 실행위원회 등을 통해 각 구단과 관련 내용을 공유하고 개선점을 보완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ABS시스템은 2020년부터 지난 4년간 퓨처스 리그 운영을 통해 고도화가 진행됐으며 볼-스트라

이크 판정의 정교함과 일관성, 판정 결과가 심판에게 전달되는 시간 단축 등의 성과를 거뒀다.

KBO는 2024시즌 시범경기부터 ABS를 도입할 예정이다.

KBO는 피치클락에 대해서도 올 시즌 이를 적용한 메이저리그의 경기 소요 시간 변화, 도루 등 경기 지표 변화, 관중의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했다.

또 KBO 리그 투수들의 평균 투구 인터벌을 전수 조사하고 평균 견제 시도 횟수, 타자의 타격 준비 완료 시점 등 세부 지표도 함께 분석했다. 분석 결과에 따라 KBO는 리그에 적합한 피치클락 규칙 마련을 위해 시행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LOTTE CINEMA | 총장로관

즐거움 문화 산책

30일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30일
2관	퍼피 구조대: 더 마이티 무비, 더 년 2
3관	익스펜더블 4, 기억해, 우리가 사랑한 시간
4관	엑소시스트: 믿는 자
5관	블루 자이언트
6관	30일, 1947 보스톤, 기억해, 우리가 사랑한 시간
9관	30일, 플라워 킬링 문, 세이 예스 어게인
7관	새내기들 환란
8관	새내기들 천박사 티마 연구소: 설경의 비밀, 1947 보스톤

광주예술의전당 문의 062)613-8233

2023년 광주상설공연(10월)

일시 : 2023-10-01(일) ~ 2023-10-29(일)

매주 목요일-일요일 오후 5시

장소 : 광주공연마루

문의 : 062-613-8379/8372

포커스 민아*슬기 퀸텟 재즈 콘서트

일시 : 2023-11-17(금) 19:3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소극장

문의 : 062-613-8233